

보도해명자료 (’17. 7. 1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脫원전 속도내면서... 신재생 퇴짜놓은 정부

(’17. 7. 18, 서울경제)

1. 기사내용

- ☐ 최근 발전공기업이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IGCC(석탄 가스화발전소)를 지으려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
- 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“IGCC가 분류상 신재생인 것은 맞지만 (탈석탄이라는) 정부 정책과 맞지 않으며 감사원도 ‘17년 감사에서’ 태안 IGCC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적정함을 지적한바 있다”고 밝혔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산업통상자원부는 IGCC 건설에 반대한 바 없으며, IGCC에 대해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
- ☐ 감사원은 태안 IGCC가 신재생원으로 부적정함을 지적한 바 없고, 다만 동 실증사업의 효율*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음

* 동일한 석탄량을 소비했을 때 생산되는 발전량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 장 (044-203-5160)
윤재웅 사무관 (044-203-5174)